광주 우성병원 교계에 희사

5월1일 '불교병원'으로 개원…병상 70실·법당등 갖춰

광주지역에 첫 불교병원이 장례예식장과 함께 문을 연다.

5월1일 개원하는 광주불교병원은 지난해 11월 기우성씨(58세, 前우성병원 원장)가 2백80억 상당의 우성병원을 천운스님에게 기증하며 "불교병원으로 만들어 불자들에게 최신의료서비스를 했으면 한다"는 의지를 밝혀 개원되게 됐다.

기씨는 우성병원을 천운스님에게 기증한뒤, 스님이 요청한 의료법인 이사직도 거절하는 무상보시행을 실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씨는 천운스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광주불교병원 원장직은 맡기로 했다. 기씨는 광주에서 정형외과 수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전문의로 기독교 신자였으나 지난해 불교에 귀의했다. "아직까지는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천운스님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여 좋은 병원 운영으로 관심에 보답하겠다"는 기씨는 인터뷰요청도 정중히 거절했다.

광주시 계림1동에 위치한 의료법인 광주불교병원(이사장 천운스님, 향림사조실)은 5월 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1층 지상9층 총건평 1천여평 규모인 광주불교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마취과 방사선과등 6개과 70병상이 5층층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 8층에 80평 법당과 9층에 법당 요사채가 마련된다. 또 현재 2~4층에 공사중인 장례예식장도 빠른시일내 개원하여 불교의식 전통의식 등의 염습과 화장시설을 갖추게 된다.

광주불교병원은 지난해부터 법당불사와 최신식 의료기기를 갖춰왔으며 10일 의료법인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했다. 이에앞서 최근에는 8명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50여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등 개원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광주불교병원 이사장 천운스님은 "불자들에게 의료봉사하는 병원으로 만들겠다"며 "병원운영이 정상화되면 불자와 스님들에게 무료시술 혜택을 넓혀가고, 장기적으로 병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재적사찰의 주지스님 추천서를 첨부한 불자들이 광주불교광환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김원우 기자〉

중신회 24일 운영위 회장사퇴건 등 논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4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송재건회장 사퇴에 따른 향후 대행체제 구성과 사무실 이전을 논의한다. 긴급 운영위 회의는 운영의원중 최연장인 홍옥진 부회장의 요청에 의해 16일 사무국이 소집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송재건회장의 사퇴성명 발표와 관련, "(송회장이) 사표를 냈다는 말만 들었다. 대의원대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14일 올해 연등축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신도회장 사퇴와 간담회 개최 요청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송재건회장은 16일 자신 소유의 정동빌딩에 입주해 있는 중앙신도회 사무실을 이달 말까지 사무조직 사무국에 요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불편 체험해보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17일 오후 서울 드림랜드에서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 장애체험 행사와 장애인장기자랑 및 연예인 공연 등 장애인큰잔치를 펼쳤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참석자들이 매표소에서 공연장 입구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체험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군불교진흥회 "사찰마다 군위문품 보냅시다"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가 3회째 벌이고 있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해에는 조계종 총무원 지원금 1천만원과 진흥회 이사들의 특별후원금, 사찰 및 불교단체의 후원금 등 2천5백만원으로 1만개의 위문품을 마련해 군법당에 보냈다.

위문품 1개에는 소책자 1권과 합장주 음료수 초코파이 등을 담아 2천5백원이 든다. 올해는 이사들이 낸 특별후원금 4백50만원이 전부다. 1천8백개 분량이다.

이하전 사무국장은 "올해도 보내주느냐는 군종병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얼버무릴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진흥회는 군종병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 2천여 사찰에 편지를 보내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02)749-5135

그렇지 않아도 군불자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불교계의 후원 부족이 감소의 원인이다. 1년에 한번 있는 초파일 위문품보내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면 '황금어장'이란 말은 구두선일 뿐이다.

〈정성운 기자〉

영탑사 금동삼존불 수덕사로 이전 '말썽'

신도·주민 "제자리로"

당진 영탑사 금동삼존불상(국보 제409호)이 8일 수덕사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신도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월30일 영탑사는 금동삼존불상의 도난사고를 우려, 수덕사 성보전시관으로 옮기기로 하고 보관장소 변경신고서를 당진군에 제출했다. 4월7일 충남도로부터 필요한 장소로 옮긴후 신고하라는 회신에 따라 8일 오후 2시 45분경 영탑사 주지와 수덕사 관계자는 85년부터 삼존불상을 보관해오던 면천파출소에서 수덕사로 옮겼다.

자비의 전화 "상담 줄고 있다"

작년 3천8백건…96년 비해 33% 감소

97년 한 해 동안 자비의전화(회장 정덕스님)에 걸려 온 상담전화는 96년도 5천4백79건 보다 33%(1천8백11건)나 적은 3천8백11건으로 나타났다.

황선정 자비의 전화 상담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97년도 자비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담건수의 감소 이유를 △상담원의 활동 저하 △타 상담기관의 잇단 신설 등으로 파악했다. 황 연구원은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담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불교상담의 틀을 구축, 독특한 상담분야 개발 △다양한 상담요구에 부응하는 자료 개발 △상담원 워크숍 주최 등을 제안했다.

이번 상담통계에 따르면 상담유형별로는 부부문제(18.7%)와 이성문제(17.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정문제(15.3%), 인생문제(10.1%), 종교문제(9.3%) 순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정신·신체적인 문제나 단순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보다는 대인간의 문제나 종교 등 인생의 가치문제들이 많은 상담내용을 이루고 있다.

"북동포 생각하며 하루 굶자"

25일은 국제금식의 날 서울대회 91개단체 동참

25일은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세계 70여개 도시에서 행사가 열린다.

한끼 또는 하루 식사비용을 아껴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중국 일본 등 11개국 70개 도시에서 동시에 전개된다. 서울대회(공동대회장 능관 ·조계종 사회부장)는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문화공연과 함께 다채롭게 진행된다.

서울대회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개 교단과 홍사단 YWCA 녹색연합 등 91개 단체가 참가해 하루를 굶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의 고통을 체험하고, 성금모금 활동을 펼친다. 또 북한 식량난 보고회 세계지도자들 메시지 낭독 실향민들의 회고담 등이 문화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군장병 5천1백명 수계 공군 성불사·육군 연무사

공군교육사령부 충국성불사(주지법사 박권영)는 11일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도문스님(대성사주지)이 계사로 참석, 교육생을 비롯한 1천1백명의 장병에게 수계했다.

논산 연무대 호국연무사(주지법사 경연수)도 19일 신교대 장병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군승단에 따르면 4월 한달간 계를 받은 장병은 1만여명이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 종단협 직할로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 이하 불추위)가 종단협 직할 기구로서 직제를 개편하고, 북동포돕기 지원사업은 물론 남북통일대비 정책 및 방안을 연구, 홍포하는데 전력하기로 하는 등 사업기조를 전환·확대했다.

불추위는 11일 제7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통일운동 기운확산작업, 연구사업, 조직·홍보사업, 북녘지원사업, 교육 및 인력양성사업 등에 대한 세부일정 및 과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불추위는 22일 '현시기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의 효과, 분단이 미쳐온 영향,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주제로 한 1차 통일준비 불교정책 워크샵을 시작으로 매월 워크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5월15일 불교지도자 통일포럼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 발대식을 갖고, 불추위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이어 포럼을 개최한다.

목탁소리

스님들의 선거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선거는 세간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 출세간의 선거가 세간인의 이목을 솔깃하게 하고 있다. 10일 치러진 동화사의 후임주지 추천자 선출 선거에는 수십명의 기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그만큼 세간의 관심도 대단했다. '스님들의 선거는 어떤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스님들의 선거가 세간의 그것과 달리 청정하고 공명정대하다면 불교가 세속을 향해 '이것이 선거의 진면목'이라는 가르침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조계종에는 많은 선거가 남아있다. 8개에 해당하는 교구본사가 서로 후임주지를 정해야 하고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종회의장도 다시 선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총무원장 선거도 가을을 기다리고 있어 교계 안팎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선거의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조계종. 종단 내부에서는 동화사 선거를 계기로 '과연 선거를 해야하나'라는 회의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세간 사회가 세간과 똑같은 방법의 선거를 치러내는 것이 결코 좋은 모양새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구본사 후임 주지 선출과 관련 대부분의 본사들은 산중총회를 통해 후임자를 추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치열한 경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였던 불국사도 문중간의 합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단지 선거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 아니라 출세간의 법대로 조용히 '자리'가 이양된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것이다. 출세간이 세간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생기는 잡음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회의원과 종회의장, 총무원장의 선출은 선거가 불가피하다. 아직 '선거없는 종단'을 만들 분위기는 형성되기 어렵다. 때문에 많은 불자들은 조용한 선거, 출세간 다운 선거를 주문하고 있다.

출세간의 선거가 세간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거를 앞둔 조계종 구성원 모두가 깊히 반조해야 할 화두다.

뉴스 & 뉴스

법사연합회 6월 창립

법사연합회가 6월 창립된다. 선진규 송춘희씨 등 재가법사 20여명은 17일 서울 안국동 동산교육회관에서 (가칭)한국불교법사연합회 발기인총회를 열고 6월25일경 창립대회를 거행키로 했다. 또 한정섭 김재일 이지행 이건호 김철회 노혜광 허성구 신근식 박상갑 임기준씨를 창립준비 실무위원으로 선임했다.

화성 신흥사 전법도량 현판

조계종 전법의해 조직위원회는 11일 화성신흥사에서 전법도량 현판식 및 순회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포교원장 성타스님 2교구 용주사주지 정혜스님 신흥사주지 성일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위원회는 전법도량으로 지정된 신흥사에 전법지원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초파일 양심수석방 건의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는 15일 과천 제2 종합청사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만나 부처님오신날 양심수전원 석방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화 '성철' 시나리오 수정

성철문도회와 직계유족인 불필스님의 '영화제작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영화 '성철'이 제목을 바꿔 선(禪)사상 중심 내용으로 꾸며진다.

박철수감독은 "영화 '성철'은 성철스님을 모티브로한 한국불교의 선수행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시나리오를 수정하게 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작품은 영화적 가공인물을 설정해 역대 한국불교의 선(禪)사상을 제계적으로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노인초청 효도잔치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는 부처님오신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28일, 5월 2,3일 3차에 걸쳐 남구지역 관내 거택보호대상 노인 및 이웃노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심청이 효도잔치를 연다. (053)476-6631

유적보존 봉사단 결성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문화유적보존 자원봉사단'이 최근 결성됐다.

연세대 사회교육원 은퇴준비교육과정에서 결성된 이 봉사단은 40대에서 80대까지 주축을 이루며 문화유적에 관한 학습과 답사 및 보존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불교언론인회 창립 장소변경 5월 1일 불교방송 3층 법당서

한국불교언론인회 창립법회(창립준비위원장 신광식 KBS연구위원)가 5월 1일 오후7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교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들의 축하 속에서 개최된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염불의 사상·역사· 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책!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말법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행하기 쉽고
그 공덕 또한 가장
수승한 수행법!

이 책은 다양한 염불의
종류와 이들이 생기된 근원,
발전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덕들에 대해
수많은 경전과 논사들의
주장을 토대로 고찰하고 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TEL:720-9372~3
FAX:723-0646
이태원 저/신국판 양장/726쪽/값 25,000원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 장가 안가길 잘했네 ㅇㄴㄹㄹM

1 2 각권 6,500원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메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주옥같은 수필집.
마음을 밝혀 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국 출판계를 강타했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전 4 권 각권 6,000원

"우학 스님!
불교가 이렇게 재미 있군요!
열번을 읽어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 옵니다."

우학 스님의 책
- 새로운 불교공부 —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풀다!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上·下
- 불교 EQ 1 2 —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불교 문답집
- 불교 사경집 — 반야심경·천수경·금강경·조발심자경문·증도가 등 30여 경전

-도서출판 좋은인연-

◆◆ 좋은인연 신간 : 삼천 배 삼천부처님 삼천배 쉽게 하는 책 (가격 : 10,000원) ◆◆

도서출판 좋은인연 (영남불교대학 부속출판사) 053)475-3707